

## 경력단절 여성의 녹색관련 분야 파트너십 훈련 도입

수행과제명 :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 녹색성장과 여성인력양성방안

과제책임자 :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30, e-mail : kimth@kwidmail.re.kr

### 요 약

녹색성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력수요구조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외국의 성별 녹색일자리 취업현황과 전망 분석, 현행 녹색부문 여성인력양성 현황, 취업현황 및 전망, 그리고 녹색사업체의 여성인력활용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함. 이를 토대로 녹색부문 여성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음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녹색성장에 따라 지역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가 변화됨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교육훈련도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의하면 전문 대졸 이하의 인력수요가 많은 분야인 폐기물 처리사업, 친환경 제조공정/소재 효율성 향상 산업, 수송부문 효율성 향상산업 등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예컨대, 각종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검사원 등에 경력단절여성을 취업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정책의 추진방향

지역 녹색관련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을 가진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 녹색관련 직업교육기관과 함께 지역 녹색사용자단체의 파트너십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①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경력단절훈련사업의 30%까지 녹색관련 훈련 직종과 관련된 훈련과정을 선정한다. 훈련과 취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신청요건에 지역의 훈련기관, 해당 분야 사업체 혹은 사용자단체의 파트너십 구축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녹색관련 훈련과정의 경우 현행 3개월 미만으로 되어 있는 훈련기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한다(2010년 현재 전국 77개 새일센터가 직접 또는 전문훈련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훈련을 실시함).

② 고용노동부 여성가장실업자 교육훈련도 지역별로 녹색관련 훈련과정을 일정 비율 할당해서 선정한다. 또한 ③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역분권형 고용·능력개발사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여성 녹색고용 창출사업 우대한다.

## 3. 정책효과

녹색부문의 여성기업주 지원과 성장촉진, 일반 여성기업주의 녹색화 지원 및 녹색정책 및 동향 등의 정보 제공

- 
-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 ▶ 관계부처 :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